

세리자와 고지로 『인간의 운명』 序說*

-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

유 재 신**

(e-mail: jessiny@hanmail.net)

目次

1. 들어가며
 2. 세리자와 고지로의 생애
 3. 대하소설 『인간의 운명』
 4. 치유와 회복
 5. 나오며
-

1. 들어가며

2000년도 일본의 아사히(朝日) 신문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역사적 인물을 독자투표로 선정하기로 기획했다. 정치, 경제 등 각 분야별로 매달 순위가 발표되었는데 6월 29일에 문학 분야가 발표되었다. 1위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2위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 9위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등 일본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골고루 선정되었다.

그중 세리자와 고지로(芹沢光治良, 이하 '세리자와'라 칭함)는 30위에 선정되어 의외로 분투했다. 의외라고 표현한 이유는 세리자와가 일본의 근대문학사에서 그다지 많이 거론되지 않는 작가이며, 한국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인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주목할 가치가 없는 작가는 절대 아니다. 그는 일본인 최초의 노벨상후보라는 명성에 걸맞게 높은 문학성으로 평가받았으며 대중적인 인기도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에선 빛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35C-2011-A00704)

** 충남대학교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을 보지 못한 작가에 속한다.

오구시 노부마사(小串信正)는 “세리자와 내지는 세리자와 문학이 지나치게 평가받지 못한 것은, 일본문학 연구나 평론에 있어서 무지 혹은 태만이라고 나는 생각해 왔다”¹⁾고 지적하고 있는데 충분히 공감이 간다. 1997년 발간된 『세리자와 고지로의 세계(芹沢光治良の世界)』(『国文学解釈と鑑賞』)는 세리자와 문학 연구의 길을 연 획기적인 논평으로, 세리자와와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가 이 특집으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몇 권의 단행본들이 간행되면서 미미하나마 세리자와 문학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도 미흡하다. 한국에서도 세리자와라는 이름은 무명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지만, 대하소설 『인간의 운명』(初出『人間の運命』1962年7月, 新潮社) 제1권(2005)과 제2권(2006)이 소설가 한말숙씨 번역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일본인 최초의 노벨상 후보자 세리자와의 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새롭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문학은 일본적 특수성뿐만 아니라 세계에 통용되는 보편적이며 인간적인 깊이가 있는 거장의 문학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의 운명』은 반세기의 일본 역사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대하소설로, 세리자와의 대표작이자 그의 문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리자와라는 작가와 『인간의 운명』을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그의 문학에 접근하고자 한다. 일본 근대문학에 있어서 그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지만 국내에서는 세리자와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14권에 이르는 방대한 소설을 본 연구에서 간단히 규정하기 어렵고 아직 이 작품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미미하여, 여기서는 기초적인 문체와 작품의 특성을 개관하고 치유와 회복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우선 서설적인 입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세리자와의 생애

『인간의 운명』은 세리자와의 대표작이자 자전적 대하소설이다. 텍스트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작가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자전적 소설이라는 특성과 작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의 생애와 문학 활동 등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세리자와는 메이지 중엽인 1896년 시즈오카(静岡)현의 가난한 어촌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가 어린 둘째아들 고지로만 할아버지와 숙부에게 남겨놓고

1) 小串信正(2003) 「芹沢光治良・没後十年」 『国文学解釈と鑑賞』3月号. 至文堂. 15頁.

신흥종교에 귀의하게 되는데, 이후 그는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극빈한 생활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 고학으로 제일고등학교를 거쳐 동경제국대학에 진학, 이후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여 농상무성 사무관이 된다. 29세에 부호의 차녀와 결혼하여 함께 프랑스로 유학, 이후 국제적인 저명인사와 예술가들과 교분을 갖게 되지만 결핵에 걸려 죽음과 대면하게 되자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1930년 귀국 후 문예잡지 『개조(改造)』에 「부르주아(ブルジョア)」가 당선되어 데뷔한 이후, 『의자를 찾다(椅子を探す)』(1932), 『사랑과 죽음의 서(愛と死の書)』(1936~1939), 『파리에서 죽다(巴里に死す)』(1942)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또 이들이 유럽 각국어로 번역 출간되어 높은 평가를 받는다. 1959년 일본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가 되고 1974년에 프랑스 문학·예술 훈장을 받는다. 일본펜클럽 회장을 8년간 역임하고, 1969년에 『인간의 운명』으로 일본 예술원상을 수상했다. 1993년 9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기까지 그가 남긴 작품은 장편 100여 편, 단편 300여 편에 달한다.

그런데 이렇게 왕성한 작가활동을 하고 문학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은 작가가 이제까지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 중 하나는 그가 문단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것에 있다. 일반적으로 잡지에 소설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저널리즘 상으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던 때에 그는 많은 작품을 직접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또 8년이나 일본펜클럽 회장을 역임했지만 유명 소설가나 평론가들과 깊은 교류는 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알고 지내던 여류소설가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가 저널리즘에 영합하는 일종의 처세술을 조언하는 장면이 『인간의 운명』에도 나온다.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문학자 출신이 아니라 경제학을 전공한, 게다가 대저택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는 문단의 이단아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단과도 많이 교류하지 않는데다,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들과 관계를 맺는 모습은 문학인 중에서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그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죽은 것도 연구와 비평이 늦어진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작가에 대한 연구는 잘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늦어졌다 할 수 있다. 1993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동시대인 현대를 사는 작가이기도 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늦었지만 그의 문학이 새롭게 조명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더욱 활발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3. 대하소설 『인간의 운명』

3.1 텍스트의 문제

대하소설 『인간의 운명』은 전 3부 1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2년 7월 제 1부 제1권 『아버지와 아들(父と子)』이 신초샤(新潮社)에서 처음 발표된 이래 1968년 11월 제3부 제2권 『재회(再會)』까지 약 7년에 걸쳐 총 14권이 발표되었다. 제1권은 간행되자마자 25만부가 팔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작자의 나이 66세에서 72세에 걸친 작품으로 작가로서의 성숙기에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세리자와 작품집』(1974, 新潮社)에 전 14권이 수록되었고, 1976년 동 출판사에서 전 7책 14권으로 문고판으로 간행되었는데 27쇄가 넘는 큰 인기를 누렸다. 발표당시는 제1부(1~6권) 제2부(7~12권) 제3부(13~14권)의 형태로 발표되었는데 이 문고판이 가장 큰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3부 구성보다는 문고판 권수에 대응하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1990년과 2005년에도 애장용 호화판이 나왔고,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인간의 운명』(勉誠出版)이 전 16권으로 간행되었다.²⁾

텍스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간의 운명』의 범위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다. 전 14권을 『인간의 운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 16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이를 따라서 2013년판이 전 16권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야시 간진(林寛仁)은 작가가 생전에 16권으로 고치려고 했다고 하면서 16권설을 주장하고 있다.³⁾ 『인간의 운명』을 16권으로 보는 이유는 제1권이 주인공 모리 지로(森次郎)의 중학교 시절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바다에 울리는 비(海に鳴る碑)』(1974)라는 작품에는 지로의 어린 시절이 그려져 있고, 『멀어진 내일(遠ざかった明日)』(1972)이라는 작품은 14권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하소설 『인간의 운명』은 1권부터 14권까지 1962년부터 1968년까지 7년에 걸쳐 모리 지로라는 주인공의 생애를 따라 순차적으로 발표되어 이

2) 현재 세리자와의 문학전집은 발행되지 않았다. 『세리자와 자선작품집』(1957, 新潮社, 以下同) 내지는 『세리자와 문학관』(1995~1997) 등의 작품집이 있지만, 여기에 『인간의 운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974년 간행된 『세리자와 작품집』에 이 작품이 수록되기도 하였지만 이 작품집은 소량 발매되었다. 또 2013년에 발행된 전16권 『인간의 운명』(勉誠出版)은 본 연구에서도 그 문제점을 밝히고 있는 바, 정본(定本)으로 다루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읽혀졌을 뿐만 아니라, 작가 생전에 전14권으로 간행한 문고판을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며, 본문의 인용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문고판 권수에 대응하여 표기하였다.

3) 林寛仁(2003)「大河小説『人間の運命』」『国文学解釈と鑑賞』3月号. 182~192頁.

미 완결된 상태였다. 나머지 두 작품은 이와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인간의 운명』이 완결된 4년 후에 지로의 다음 이야기가 쓰였고, 6년 뒤에 지로의 어린 시절이 발표된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 연재하지 않고 한 번에 써서 바로 출간하는 작가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후에 지로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덧붙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하나의 작품으로 구상하고 취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자는 『인간의 운명』 제7권『고독의 길(孤獨の道)』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운명」이라는 대사원(大寺院) 같은 건축이 완성된 후, 아직 작자에게 수명이 남는 행운이 주어진다면 「인간의 운명」의 별책으로서, 지로의 유학시절이나 이시다의 외국생활을 헤밍웨이의 「이동축제일」처럼 그럴 뿐 아니라 지로의 유년시절도 써서 대사원의 문이나 담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다.(제7권 p9)⁴⁾

작가 본인이 명백히 별책이라 밝히고 있는 바, 『인간의 운명』을 16권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지막권인 14권이 1968년에 발표되면서 이 작품이 일단락된 것도 『인간의 운명』이란 작품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14권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두 작품이 부속적 작품이라는 인식은 가능하지만, 후에 전집의 형태로 간행한다 하더라도 역시 전 14권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2 기존의 평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단계라서 몇 개 되지 않지만 기존의 평가를 살펴보겠다.

세누마 시게키(瀬沼茂樹) 씨는 작품의 「해설」에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본의 근대화 속에서 작자의 고귀한 이상에 대한 열정이 어디까지 자기를 끌어올렸는가를 추구하면서, 자기의 생애가 결국 인간의 존엄을 잃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일반화하고 있다.”⁵⁾고 설명하면서 이 작품을 교양소설(Bildungsroman)이자 사상소설이라 평가했다. 이노우에 켄(井上謙)은 “〈종교〉 〈환경〉 〈교육〉이라는 세 개의 큰 기둥을 더듬으면서”, “세리자와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어디까지 그 존재가 허용되는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 분석하였고⁶⁾, 엔도 유(遠藤祐)는 “일본 근대에서는 보기 드문 장대한 이 창작은 아마 프랑스에 〈대하소설〉의 풍부한 전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던 『장·크리스토프』의 저자, 로

4) 초출: 1965년 6월. 新潮社.

5) 瀬沼茂樹(1976) 「解説」 『人間の運命(七)』 新潮文庫. 547頁.

6) 井上謙(1997) 「『人間の運命』第一部一我が道を辿る」 『国文学解釈と鑑賞』 9月号. 71~79頁

망 룰랑(1866~1944)의 깊은 뜻을 잇는 시도가 아닐까”⁷⁾라고 보고 있다.

한편 노노미야 노리코(野乃宮紀子)는 작가의 폭넓은 시야, 교양의 깊이와 전편을 통해 관철하고 있는 비판정신을 지적하면서, “독자에게 용기를 주고 그 인생관을 바꾸는 것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⁸⁾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시바타 도쿠에(柴田德衛)는 『인간의 운명』의 배경으로 가난함과 종교라는 모티브를 지적했다.⁹⁾ 또 하야시 간진은 “특히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믿어버린 지로의 어린 날의 상처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찾아가는데, 이것이 대하소설 『인간의 운명』의 중심적인 주제(테마)이다”¹⁰⁾라고 분석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의 대부분이 「국문학 해석과 감상」이라는 지면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지만 어느 측면을 다루든 많은 부분이 아직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방대한 내용과 사건이 담겨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논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의 성장 내지는 운명이라는 테마를 고찰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 될 것이다.

3.3 작품의 특성

다음은 『인간의 운명』을 개관하면서 이 작품의 특성과 문제점을 간단히 고찰해 보겠다.

근대이후, 요동하는 역사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모를 이룬 세계와 일본 — 그 격동의 드라마를, 메이지·다이쇼·쇼와 삼대에 걸쳐 곳곳이 살아간 한 일본인의 발자취를 더듬는 대하소설 『인간의 운명』(제1권 뒤표지).¹¹⁾

이것은 문고판 표지에 쓰여 있는 글이다. 이 작품을 한마디로 요약한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일본 근대문학에서 보기 드문 장대한 소설. 이 자체가 이 작품의 큰 특성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일본 근대문학에서 대하소설은 흔하지 않다. 대부분의 근대문학은 단편소설 내지는 중편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순문학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근대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할 수 있다.

7) 遠藤祐(1997) 「『人間の運命』第二部」(上同). 83頁.

8) 野乃宮紀子(1997) 「『人間の運命』第三部」(上同). 97頁.

9) 柴田德衛(2003) 「人間の運命」の背景 『国文学解釈と鑑賞』3月号. 78~83頁.

10) 林寛仁(2006) 「大河小説『人間の運命』」 『芹沢光次郎』至文堂, 199頁.

11) 『人間の運命(一)』新潮文庫. 表紙.

세리자와 본인이 「작자후기」에서 “1953년 파리의 출판사가 몇 권이 되어도 좋으니 메이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걸어온 길을 느낄 수 있는 대하소설을 써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일은 몇 년 동안 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사회소설이 아니라 일본인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증언한다는 생각으로 메이지 시대에 태어난 우리 세대의 전기(伝記)—우리들의 역사와 그 역사가 일본을 어떻게 변모시켰는지 써보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¹²⁾고 집필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은 한 개인의 전기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시대를 그려내고 있다. 모리 지로를 포함하여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 일본이 걸어온 길, 즉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까지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두 번째 특성은 깊은 감동을 주는 문학성이다. 주인공 모리 지로라는 인물이 성장해 가는 과정, 즉 그의 생애를 따라 고난과 역경, 좌절과 희망 등 그가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자기실현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독자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주고 있다. 지로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고뇌하며 개척하고 성장해 나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오롯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한 인간의 진솔한 삶이 담겨있기에 독자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스토리의 힘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 이것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다.

세 번째 특성은 이 작품을 통해 일본의 시대와 역사의 발자취를 종적으로도 횡적으로도 조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역사소설의 경우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겠지만, 서정적이며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시대의 상황과 갈등을 볼 수 있고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이 작품의 장점이자 특성이다. 역사적으로 커다란 사건들도 실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개개인에게 각기 다른 의미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주인공과 그 시대를 살아간 평범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격변하는 사회와 시대의 흐름을 더 생생히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제5권 『잃어버린 사람(失われた人)』에서는 관동대지진 발생 후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유언비어 이면의 진실을 아는 자들과 유언비어에 휘둘리는 일반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또 제9권 『사랑과 죽음(愛と死)』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국주의로 치달는 일본 국내외의 상황과 함께 많은 죽음이 그려지고 있다. 그중에 친구의 여동생 스에코(末子)가 애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전향을 거부하고 옥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상과 신념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갔다. 개개인의 모습들에서 시대

12) 芹沢光次良(1962) 「あとがき—若い柴田徳衛君に—」 『人間の運命』第一巻, 275~276頁.

를 휩쓸었던 이념과 사상이 상세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가난한 어촌 마을이 어떻게 기계화되고 노동운동에 눈뜨는지, 시대와 함께 변해가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근대 일본인의 소소한 모습들도 표현되고 있다.

넷째는 신앙이란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선 천리교가 대표적 종교로 등장하고 있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무엇인지, 생명의 가치와 운명에 대해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을 통해 끊임없이 묻고 있다.

지로의 아버지는 종교에 삶을 바치지만 그것이 행복한 삶이었는지 지로는 다양한 방면으로 탐색한다.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 증명하려는 사람들, 신을 믿지 않지만 자신의 신념을 신처럼 믿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군상들이 그려진다. 지로의 삶 자체가 제목 그대로 불가사의한 운명을 걸어왔듯이 곳곳에 신의 존재와 운명에 대한 질문들이 던져지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라는 거대한 운명도 빠질 수 없다. 운명과 신앙의 가치를 묻는 지로의 탐색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천황제와 연결되면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비추고 있기도 하다.

다섯째는 각권의 제목에 따라 주목되는 문제의식이다. 예를 들어 제1권 『아버지와 아들』 이면, 지로와 아버지를 중심으로 버림받은 상처와 혈연의 관계, 정신적 아버지 다베(田部) 씨의 부성애, 또 다른 인물들의 부자관계 등이 서로 조응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와 개인이라는 천황제의 문제도 간접적이거나 비관적 시각을 내비친다.

제11권 『전야에 서다(戰野にたつ)』 같은 경우는 만주사변의 본질을 알기 위해 직접 만주로 간 지로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중일전쟁을 배경으로 하면서 일본 안팎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쟁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습과 포탄으로 파괴된 전쟁터, 평화로운 농촌을 불태우고 중국인을 살해하고 여자들을 범하는 군인들을 표현하면서, “당신 나라에서는 만주에 왕도로 다스려지는 천국을 만든다는 선전을 하고 있다지만, 일본인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를 만들려는 본심을 알고 중요하고 있어요.”(p86-87)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그대로 적고 있다.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때론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때론 깊은 성찰을 하면서 인간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 그것도 이 작품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수많은 관점으로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측면에서 모두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인간의 운명』은 모리 지로의 운명, 근현대를 살아가는 일본인 모리 지로의 생애를 종적으로 그려나가며, 가족, 사랑, 종교, 정치, 죽

음 등 범인류적인 문제를 횡적으로 짜 넣은, 그야말로 대하소설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춘 대작인 것이다. 아울러 문학적으로서도 사회적으로서도 가치가 크다 할 수 있다.

4. 치유와 회복

『인간의 운명』은 어떤 각도로 조명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빛의 파장을 그려내는 보고와 같지만, 그 중심은 주인공 모리 지로의 생애에 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통해 일본의 근현대사회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지만, 여기서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다. 이는 종교 내지는 운명, 성장 등으로 읽어 왔던 기존과 달리 작품을 분석하는 독특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치유와 회복은 크게 텍스트 내부의 모리 지로 개인의 문제, 그리고 텍스트 외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대일본이라는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1 모리 지로의 치유와 회복

우선 텍스트 내부의 모리 지로 개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모리 지로의 치유와 회복은 첫째로 부자(父子) 관계에 있다. 지로의 부모는 지로가 세 살 때 천리교에 귀의해서 전 재산을 교단에 바치고 마을을 떠났는데, 할아버지가 귀여워한다는 이유로 지로만 숙부의 집에 남겨졌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사는 지로는 부모를 그리워하면서도 미워했다. “아버지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지로의 마음에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를 증오하는 싹이 심겨졌다.”(제1권 『아버지와 아들』 p66) 아버지를 찾아가 중학교 진학을 위한 학비를 부탁하지만 매정하게 거절당하고, 지로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기로 한다. 갓은 고생 끝에 동경대 입학허가를 받아 하숙을 찾던 중에 다베 씨를 만나게 되고, 혈연을 넘어서 그의 부성애에 지로는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는다.

“(전략)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자네를 관찰한다기보다 내 자신의 처음 감정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처음 부모의 마음 같은 걸 체험했네. 자네 일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식욕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밤이 늦었는데 어디 간 걸까—참으로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 저 녀석을 기쁘게 해줘야지, 저 녀석한테 경멸받지 않도록 해야지……이런 감정이 부성애라고 하는 걸까. 자네에게는 달갑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고마웠네. 우선 감사 인사를 하지.”(제3권 『사랑(愛)』 p180-181)

지로는 이러한 다베 씨의 말에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이후 그를 페루(불어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정신적인 아버지로 생각한다. “지로는 신기해서 어쩔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다베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렸을 적부터 이 사람 밑에서 자란 것처럼 온화한 기분이 들어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해주고 받아줄 것처럼 마음이 안정되었다.”(제3권 p187)는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고아 같은 지로가 새로운 아버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고 나아가 잃어버렸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어 간다. “부모님도 지로에게는 남일 뿐이었”(제3권 『사랑』 p240)지만, 다베 씨의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은 지로는 이후 친아버지와 서서히 교류한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지로는 “성실하고 정직한 신자인 아버지”,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아름답고 온화한 표정이 되는 걸까하고 A신문의 스투키 부장이 칭찬한 적이 있지만, 그늘 없는 맑고 깨끗한 얼굴이었다.”(제9권 『사랑과 죽음(愛と死)』 p252)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비록 비판적인 시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믿고 있는 천리교라는 종교에도 관심을 갖고, 종교와 운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지로는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형제간의 관계 회복이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상처가 되었지만, 아버지에게 어렵게 원조를 부탁했을 때 형이 원조를 받고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당한 것도 지로에게 마음의 상처였다. 지로의 눈에 형 이치로(一郎)는 부모와 돈을 독차지한 수혜자였고 상대적으로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로의 질투심과 경쟁심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일고(一高) 시절 유명작가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의 강의를 듣는 모임에 참석했을 때 모임의 회원이던 형에게 신입회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지만, 형은 별 불일 없는 모임이라고 둘러대며 거절했었다. 나중에 모임에 참석해서 형의 태도를 보며 지로는 “그날 밤, 이치로는 텍스트도 가져오지 않고 강의 직전에 나타나서 강의 중에 벽난로 옆에 선채로 방청하고 있었다. 그 오만 불손한 태도에 지로는 질립과 동시에 동생으로서, 작가나 다른 회원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제3권 『사랑』 p11-12)라고 차가운 시선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같이 일고와 도쿄대를 다니면서 자주 보게 되고, 졸업 후에도 신문사에 다니는 형과 정치나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며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판적 발언도 하면서 동질감이 서서히 자라간다. 무엇보다 남동생 고로(五郎)가 사상문제로 구치소에 갇혔을 때 형과 상의하면서 연대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면서 홀로 피해자, 홀로 고아 같았던 마음들이 서서히 녹아들면서 형제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형의 편지를 받고 찾아간 늙은 어머니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로써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잘되기를 바라는 형제의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우정의 치유와 회복이다.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중학교 친구, 이시다 고이치(石田孝一)는 지로의 생애에 오랜 시간 함께 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그들 사이에 깊은 우정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시다가 먼저 친구가 되자 해서 둘이 친구가 되었지만 지로는 가난한 어부의 아들인데 비해 이시다는 부잣집 아들, 지로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인데 비해 이시다는 유서 깊은 지주의 장남으로 서로 늘 상반된 존재였다. 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도 맞지 않았다. 큰 화재가 났을 때 지로는 친구의 안부와 피해를 걱정했는데 이시다는 아름다운 광경이었다며 덕분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태평스런 말을 한다. 이시다의 어머니는 두 사람을 다음과 같이 대비시키고 있다.

“모리 씨는 정말로 밭을 땅에 붙이고 있어 훌륭하네요. 선생님을 해서 학비를 만들어 공부하다니 감탄했어요. 그런데 고이치로 말하면 뜬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중략) 이전에는 보트였죠? 그리고 나서 축음기 음반을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서, 다음엔 잡지 만드는 거였죠? 이번에 또 말이에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밭을 땅에 붙이고 있지 않으니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네요.”(제2권 『우정(友情)』 p359-360)

이시다가 친구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환경과 사고의 격차로 인해 그는 오히려 지로에게 열등감을 인식시키는 존재였다. 그의 말과 행동 중에 지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지로는 우정의 감정에 많은 상처를 받았었다. 이 둘의 사이는 끝까지 진정한 교류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만난 친구 오쓰카 마코토(大塚誠)와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된다. 어려운 경제학 수업에서 친해진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가족, 사랑, 인생에 대해 깊은 이해와 신뢰를 갖는다. 오쓰카는 가족의 아픔과 비밀을 숨김없이 말하고, 지로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는다. 오쓰카가 프랑스로 유학을 간 이후에도 둘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오랫동안 우정을 이어간다.

모리 군, 가능한 한 빨리 유럽으로 와서 이 멋진 마드모아젤을 고뇌에서 구하고, 그녀의 사랑 안에 자네의 행복을 만들도록 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틀림없이 평생 후회를 남길 거야. (제5권 『잃어버린 사람들』p106)

다정한 친구여,
이 편지가 자네에게 도착할지 모험을 해 본다.

(중략)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일고 이학년 일 학기 마루젠에서 로망 롤랑의 『싸움을 초월해서』라는 평론을 발견하고 사왔을 때, 자네가 뭘 듯이 기뻐한 일을. 읽고 싶어도 못 샀던 책이라 말하며 내가 읽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4기숙사 13번 어두운 방에서 함께 흥분하면서 탐독했었지.(제12권『어두운 나날(暗い日々)』p299-301)

위 문장에서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로가 결핵에 걸려 요양을 할 때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지로가 소설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준 사람도 오쓰카였다. 그는 일본에서는 예술가가 멸시받는 다며 자기가 원조해 줄 테니 프랑스에서 와서 일을 하라고까지 말한다. 이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에서 지로가 갈망하던 깊은 우정의 유대를 느낄 수 있다. 지로는 이를 통해 이시다로 인해 상처받았던 우정을 치유하였다 할 수 있다.

넷째로는 지로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다. 가난과 가족, 환경 등에서 기인한 열등감과 수치심, 그리고 불신감이 지로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지로는 부단한 노력과 도전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해간다.

“어린 날부터 빈곤의 오욕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한 끝에”(제8권『폭풍 전(嵐の前)』p327)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로는 가난에 대한 수치심이 깊었다.

지로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은 탓인지, 열등감이 항상 떠나지 않고, 언제나 자기를 믿을 수 없었다. 소학교 시절부터 신동이라고 불리면서도 스스로는 수재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때까지 많은 시험을 치렀지만 시험을 볼 때마다 잘못했던 것만 항상 마음에 남았다.(제7장『고독의 길』p210)

위와 같이 지로 스스로 인정한 열등감은 자신의 문학적 재능의 발현과 더불어 서서히 자신감으로 변해간다. ‘자연스럽게 가면을 쓰고 본심을 감추는 습성이 생겼’다고 스스로 말했던 지로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글을 쓰는 것임을 알고 도전한다. 즉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긍정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후 재능을 인정받고 작가로서의 길을 선택한 후, 지로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일본도 문명국이라면 문학작품을 민족의 보물로 여기고 작가를 존경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도 이야기했다.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아직 돌아 보면 부끄럽지만 그런 포부로 작가가 되려고 하는 거라고 지로는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정도 말하면 아리타 씨가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다.(제8권『폭풍 전』p421-422)

자신이 쓰는 글이 민족의 보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런 작가가 되려고 하는 자세에서 열등감이 치유되고 자신감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다. 운명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작가로서 문학의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모습은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 나아가 자부심까지 엿보인다.

다섯째, 사랑의 치유와 회복을 들 수 있다. 첫사랑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사랑하는 연인 가즈코(加寿子)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지로는 큰 아픔을 겪는다. 이후 결혼하지 않고 혼자살고 싶다 생각했지만 아내 세츠코(節子)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남녀 간의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간다. 처음에는 지로의 열등감과 부잣집 딸의 오만함이 부딪치며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겪으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으면서 부부의 사랑을 완성해 간다.

여섯째는 가난이라는 환경의 치유와 회복이다. 과거에 집안 소유의 나무가 마을의 표식이 될 정도로 큰집에 살고, 모두 지로를 도련님, 도련님하고 불렀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종교 때문에 사라지고, 지로가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된 것은 이미 설명했다. 맨발로 소학교에 다니면서 점심때 수돗물로 허기를 채우고 겨울엔 땀감으로 술잎을 긁어모아 야만인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다. 진학하려해도 학비는커녕 나날의 현실이 버거운 상태였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난다. 또한 아베 씨와의 만남과, 대부호인 처가의 후원으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날 만큼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지로는 가난의 수치를 씻어 버린다.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의 길을 선택했을 때도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해 나간다. 무력하고 굴욕적인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지로는 자립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의 치유라는 육체의 회복이 있다. 지로는 귀국 직전 폐결핵에 걸려 죽음과 마주하게 된다. 어려서 늑막염을 앓은 것이 결핵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 지로는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자신을 돌아본다. 가난한 어촌에서 할아버지와 삼촌이 자신을 어부로 만들려했지만, 배 멀미가 너무 심해 그는 배를 탈 수 없었다. 스위스에서 요양하고 일본에 돌아온 뒤에도 지로는 늘 건강을 신경 써야만 했다. 하지만 꾸준히 자신의 몸을 돌보면서 “죽은 것처럼 살아”간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오래도록 장수한다.

4.2 근대일본의 치유와 회복

다음으로 근대일본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는 텍스트 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인간의 운명』에 나타난 비판의식은 전근대적인 문화와 풍습, 정치, 사회 문제 등 다방면에 이르고 있지만, 일본이라는 국가의 운명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1권부터 14권까지 모리 지로의 생애는 일본이라는 나라와 분리될 수 없다. 텍스트의 초반부터 황태자가 지방에 행차하는 모습을 상세히 그리면서 천황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황태자가 중학교에 방문하는 것이 ‘광대무변한 황은’, ‘천재일우의 영광’이라며 교장이 감격하고 흥분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친구 이시다의 집에서 아끼던 분재를 천황가를 위해 내어주는 척하며 결국 제일 귀한 것은 숨긴 사건들이 초반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는 천황제가 모리 지로를 비롯한 일본인 전체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일본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지만, 세계적 정세 가운데 점점 군국주의로 변모하고 전쟁으로 치닫는 국가의 폭력이 이 작품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다.

지로도 자경단에 끼어 있었지만, 조선인의 습격과 사회주의자의 봉기에 대비하기 위해 자경단원은 누구나 일본도를 비롯해서 모든 종류의 흉기로 무장할 것을 요구받았다. 정말로 조선인이 습격할 거라고 위에서 믿게 만들었다. 지진과 방화의 혼란에 편승해 사회주의자가 흉계를 꾸밀 거라고 위에서 공포심과 경계심을 불어넣었다. (중략) 겨우 안도하면서, 부흥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무렵, 오스기 사카에 부부가 유아와 함께 헌병대원에게 학살된 것을 알게 되었다.(제5권『잃어버린 사람들』p46. 밑줄 필자. 以下同)

세계공황의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불경기의 밑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회불안 속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운동을 밖으로의 폭풍처럼, 그 공포에 눈을 빼앗겨 발밑에서 파시즘이 안에서부터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을 일본국민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제8권『폭풍 전』p463-464)

노동쟁의가 많아서 세상 사람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고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때, 군의 신예장교들이 군대를 써서 몇 번이나 검은 혁명·쿠데타를 기도한 것은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산주의 앞잡이라고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어느 유치장이나 가둬 칠만큼 구속되고 고문을 당해 눈물과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하는 때에, 쿠데타에 실패한 장교들은 헌병으

로부터 보호받고 술과 게이샤를 대접받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일까. 현실의 일본을 들라크루아처럼 한 장의 거대한 그림으로 그린다면, 기괴한 미치광이 국가도가 되지 않을까. 불과 수년 동안 외국에 살고 있는 사이에 일본이 변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본질이었던 것을 외국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괴하게 느끼는 것일까.(제8권 『폭풍 전』 p509)

위의 인용문은 제국주의로 치닫는 일본의 모습과 이에 대한 지로의 비판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의 일부 예이다. 그렇게 일본은 다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전쟁은 깊어져만 가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각권의 제목과 호응하여 흘러간다. 중국과 전면전이 시작된 제11권은 『전야에 서다』,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는 제12권은 『어두운 날들』, 공습과 피난 등 전쟁은 격렬해지지만 나가사키의 피해로 머지않아 전쟁이 끝날 것임을 예고하는 제13권은 『새벽(夜明け)』이다. 패전을 ‘새벽’이라는 제목과 연결시킨 것은 작자가 종전을 국가의 회복으로 보고 있는 것의 반증이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생각했을 때 비정상적이고 병들었던 제국주의의 역사가 패전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회복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이라는 국가로서 텍스트로 읽을 때 근대일본의 치유와 회복이 작자의 의도인 것은 이 작품이 1968년에 종결되었다는 것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8년은 바로 메이지 유신 100주년에 해당한다. 그해 이를 기념해서 NHK에서는 메이지 유신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사카모토 료마(坂本竜馬)를 특집으로 한 드라마 「료마가 간다(竜馬がゆく)」를 방영하기도 했다. 천황 중심의 새 정권이 수립되고 근대화의 개혁이 시작된 메이지 유신, 즉 1868년은 일본 역사의 운명을 바꾼 의미 있는 해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작가 세리자와는 “메이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걸어온 길”을 쓰고자 했다. 세리자와가 1962년 7월 『인간의 운명』 제1권을 발표한 이래 의욕적으로 왕성하게 작품을 썼고 마지막 권인 제14권 『재회(再會)』를 1968년 발표하고 작품을 끝낸 것도 우연이라 할 수 없다. 제14권에서는 천황의 인간선언에 대한 일본인의 동요와 함께 전후의 일본을 보는 지로의 자세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와 동시에 지로는 부탁받으면 어디든지 강연하러 갔다.

전쟁 중에 학생이 찾아 올 때마다 (중략) 패전 후 정신의 지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눈을 빛내며 집어삼킬 듯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면, 이것도 창작가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여성이 어느 회장이나 가득차서 열심히 듣는 것을 보면, 살아가는 길을 찾고 있는 절실함이 사무

쳐서, 점령군이 설교하는 민주주의나 인권존중에 대해서 연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일본인의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이나 노동정신이 왕성한 것 등 외국인과 비교해서 일본인의 장점을 들며 장래 일본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낮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며 격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제14권『재회』p341)

위 문장은 모리 지로의 심정만이 아니라, 작자 세리자와의 심정이기도 하다. 본인 스스로 ‘메이지 시대에 태어난 우리 세대의 전기’라고 밝혔듯이, 메이지 유신으로 시작된 천황 중심의 근대일본이 패전과 함께 막을 내리고 새 시대가 열리는 모습을 마지막 권에서 그리면서 일본이라는 국가의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고자 한 작가의 모습과 겹치고 있다 할 수 있다. 마지막 장에서 일본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립하고, 지로가 스위스에서 열리는 펜클럽대회에 참가하러 가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작가가 지로라는 인물을 통해 그려낸 치유와 회복이라는 큰 줄기가 심층에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14권으로 완결된 작품세계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간의 운명』이라는 텍스트 내의 인물 모리 지로의 시각의 한계성, 나아가 작자 세리자와의 한계성이다. 작가와 작자, 그리고 등장인물은 엄밀히 말해서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동일시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증언”하는 “전기(伝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로를 통해 텍스트를 총괄하는 작자를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운명』에서 작자는 모리 지로라는 인물을 통해 현상이나 사람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지만, 천황제나 군국주의, 그리고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 비판만 할 뿐 어떤 대안이나 행동,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관동대지진 이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배후 세력에 대해 비판만 할 뿐 그로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조선인 내지는 무고한 생명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을 보이지 않는다. 종군기자로 중국에 갔다 온 내용도 중국인의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써 놓았지만 일본인으로서의 입장 내지는 자신의 의견이 거의 피력되어 있지 않다. ‘인상과 감상’(제11권『戰野にたつ』 p92) 정도이다. 모리 지로는 기록자이기는 해도 발언자는 아니었다.

물론 소설의 기술방식이 주로 3인칭 객관적 시점을 사용하고 있는 점, 당시의 시대상황 가운데 한 개인으로서 국가전체적인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 또 픽션에서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로의 강한 비판의식 속에서 위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

고 있다는 것은 지로의 한계성, 나아가 작자의 한계성이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작자는 모리 지로라는 인물을 통해 비판적이며 양심적인 인물상을 구축하려 노력해 왔다. 늘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돌봐야 하는 것, 글을 쓰는 것이 자신이 삶을 증명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끝없이 강조한 모리 지로였다. 하지만 전편을 통해 관철하고 있는 비판정신도 결국은 일본인으로서 상당히 한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 역시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가해자로서의 국가인식이 더하여지지 못한 것은 역시 객관적인 시각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패전 후의 일본의 미래를 염려하며 걱정한다면, 그 이면에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많은 주변국에 대한 아픔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 갖는 한계점이라 생각된다.

덧붙여 말하면 작가 세리자와에게 강한 선민의식이 있었음도 지적하고 싶다. 작가가 죽지 전에 마지막까지 집필한 ‘신(神) 시리즈’ 중의 하나인 『인간의 생명』¹³⁾이라는 작품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메이지(明治)라는 것은 해와 달이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해와 달이라는 것은 옛날사람들이 신이라고 우러러 절한 것으로 일본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 신국이다. 따라서 외국과 전쟁한다 해도 신의 도움으로 지는 일은 없다고 특히 메이지 37, 38년 러일전쟁 중에는 자주 들었다.

이 신념을 선생님뿐 아니라 모든 어른이 확신하고 있었고 누구나 자주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芹沢光治良(1991)『人間の生命』新潮社, p13~14)

“해의 근원의 나라(日のもと之国)”(上同, p150)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들은 근대일본의 제국주의적 교육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인의 무의식에 자리한 선민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역시 ‘신 시리즈’ 중 하나의 작품인 『신의 미소(神の微笑み)』라는 작품에서도 서양인의 말을 빌려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은 프랑스인과 일본인”(芹沢光治良(1988)『神の微笑み』新潮社, p61), “색채의식이 예민하다든가, 두뇌가 명석하다든가, 프랑스인과 공통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神の微笑み』, p62)이라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운명』에서는 이러한 선민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로가 서구문명, 특히 프랑스와 일본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인

13) 俞載信(2006)『『人間の生命』 - 一聖なるものの親密さ - 』『芹沢光治良』國文學解釋と鑑賞別冊, 至文堂. 247~252頁 참조

용한 “일본인의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이나 노동 정신이 왕성한 것 등 외국과 비교해서 일본인의 장점을 들며 장래 일본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낮지 않을 것”(제14권『재회』p341)이란 표현 등에서 지로의 의식이 작자의 선민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면들을 고찰해 보았을 때, 모리 지로의 양심적 비판의식은 자기중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나오며

이상으로 대하소설 『인간의 운명』의 특성을 살펴보고, 주인공 모리 지로와 그를 통해 묘사되어 있는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았다.

‘사람들의 생애나 가족의 역사 따위를 사회적 배경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대하소설의 정의처럼, 이 작품은 주인공 모리 지로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일본 사회와 시대를 장대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버림받음과 경제적인 빈곤, 생명을 위협하는 육체적 질병 등 주인공 모리 지로의 인생은 많은 상처와 고난이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자기를 확립해 가면서 삶을 치유하고 회복한다. 운명적인 만남과 도움의 손길도 있었지만 이러한 치유와 회복은 모리 지로의 부단한 노력과 자기성찰 없인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걸어온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로써 이 작품을 읽을 수도 있음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다. 이 작품이 단순한 개인의 일생을 다룬 전기기가 아니라, 다양한 인물군상들 속에 자리한 작가의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감동을 통해 격동의 일본 근대사를 꿰뚫고 있으며 나아가 새 시대를 향한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로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전근대사회에서 근대화를 이루며 제국주의로 치달아 가던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지만 작자는 그것을 오히려 일본의 치유와 회복으로 표현하였다. 개개인의 삶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탐욕으로 몰들었던 일본제국이 패전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과정을 그려나가며 작자는 거기에서 작은 희망을 보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작가가 일본 국민에게 그리고 세계에 전하려는 메시지가기도 했다.

또한 이 작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과 신실함, 이상에의 추구 등 인간적 교훈과 감동은 양서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다.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존재하는가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작가의식은, 가치난립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자의 예리한 비판의식도 결국 일본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일본 최초의 노벨문학상후보 세리자와 고지로. 문학성과 대중적인 인기를 겸비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문학은 다른 작가와 비교할 때 너무나 저평가되었다.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리자와의 문학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세리자와와 그의 문학을 알려 새로운 관심과 재평가를 제기한 것에도 본 논문에 의의가 있겠지만, 그의 문학의 문학적 보편성과 예술성, 문학정신을 조명해 본 것에도 의미를 부여해 본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井上謙(1997)「『人間の運命』第一部—我が道を辿る—」『国文学解釈と鑑賞』9月号, 至文堂. 71~79頁.
- 遠藤祐(1997)「『人間の運命』第二部」(上同), 83頁.
- 小串信正(2003)「芹沢光治良·没後十年」『国文学解釈と鑑賞』3月号, 至文堂. 15頁.
- 柴田徳衛(2003)「『人間の運命』の背景」『国文学解釈と鑑賞』3月号, 至文堂. 78~83頁.
- 瀬沼茂樹(1976)「解説」『人間の運命(七)』新潮社. 547頁.
- 芹沢光治良(1962)「あとがき—若き友柴田徳衛君に—」『人間の運命』第一卷, 新潮社. 201~205頁.
- _____ (1976)『人間の運命』(一)~(七)新潮社.
- 野乃宮紀子(1997)「『人間の運命』第三部」『国文学解釈と鑑賞』9月号, 至文堂. 97頁.
- _____ (2005)「人間の運命」『芹沢光治良一人と文学—』勉誠出版. 130~151頁.
- 林寛仁(2003)「大河小説『人間の運命』」『国文学解釈と鑑賞』3月号, 182~192頁.
- _____ (2006)「大河小説『人間の運命』—世界文学としての芹沢文学—」『芹沢光治良』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 至文堂. 199頁.
- 齋藤信(2006)「『人間の生命』—聖なるものの親密さ—」『芹沢光治良』, 至文堂. 247~252頁.

要 旨

Kojiro Serizawa has been receiving a very meager appraisal in spite of the fact that he was a contemporary writer with high literary value and mass popularity as the first Japanese candidate for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Although not man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in Japan, he is virtually unknown in Korea and without any studies about his literature. Accordingly, the purpose was to newly cast light upon Serizawa and his literature.

『Human Destiny』 is a saga consisting of 14 volumes, depicting the turbulent modern Japanese history along with numerous figures centering on the process of growth and self-realization through the hardships and adversities experienced by the main character Jiro Mori.

Considering the aspects other than the text such as the writer's motive of writing and period of release, healing and restoration can be seen as the biggest theme of the text.

Japan that was reaching towards imperialism upon achieving modernization from premodern society was defeated in the Pacific War, but Jiro Mori accepted it rather as the restoration of Japan. And this can be seen as the message that the author intends to convey through 『Human Destiny』 .

Key Words : Kojiro Serizawa, Human Destiny, Autobiographical Saga, Healing and Restoration, the Modern Japan

투 고 : 2014. 5. 31
1차 심사 : 2014. 6. 14
2차 심사 : 2014. 7. 5